

전남

수질 오염 심각한 순천 해룡천·석현천·옥천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킨다

市, 388억 들여 2012년까지... 녹지공간 시민에 제공

순천시가 오염이 심각한 도심하천을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한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총 3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도심하천인 해룡천, 석현천, 옥천 등을 각 하천별로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살아 숨쉬고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정비·복원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말까지 총사업비 94억원을 투입, 물고기 떼죽음과 수질악화가 반복돼 복원 요구가 높은 해룡천 정비를 나섰다. 오염정도가 가장 심각한데다 순천만으로 끝바로 물이 흘러들어가 다른 하천에

비해 순천만갯벌 습지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컸다. 시는 이를 개선하고 보존키 위해 흙댕크스 풍덕점~음식물 자원화시설에 이르는 4km를 자연친화형 실개천으로 복원해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방침이다.

현재까지 퇴적토 준설, 상안보 개량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2개소가 완공됐다. 앞으로 생태정화 습지와 하천 곳곳에 여울 조성, 수생식물을 식재해 물 흐름을 유도하고 수질 개선과 생태기능 회복을 도모한다.

원도심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옥천은 옥천동 옥룡교부터 동천 합류지점까지 2.9km를 정비한다. 현재는

천변에 주차장이 설치돼있으며 폭우시 상습적인 침수피해도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곳은 치수 기능이 조화된 하천기능 회복과 시민의 친수 하천공간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천변 주차장을 모두 걷어내고 수변물 자원화시설에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천변 양쪽에 산책로를 조성한다. 축조된 지 40년이 넘는 옹벽과 석축 호안은 안전진단 후 보강공법을 이용해 자연호안으로 조성한다.

옹벽은 아토포타일로 변화를 시도하고 바닥은 블록을 이용해 조화류가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지난해 석축 정밀조사,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쳤으며 오는 2012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총 1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 북쪽에 위치하고 순천대와 경합서를 끼고 도는 석현천은 오는 2012년 말까지 161억원을 투입, 석현동 사계절상장~동천 합류지점까지 3.5km를 복원한다.

치수 위주의 콘크리트로 된 낮은 시설물은 자연형 시설물로 교체하는 등 하천환경을 바꾼다. 석현저수지 퇴적토를 준설하고 2km의 옹벽과 석축 호안을 자연호안으로 조성하고 동천 유수수 확보를 통해 살아있는 하천으로 복원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생태하천 조성으로 재해예방 및 하천의 치수기능을 증대하고 수변 녹지공간 확보로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jja@



광양시 광양시 진원면 전소리 망덕포구에서 항일시인 운동주(1917~1945) 시비 제막식을 가졌다.

광양시는 지난 19일 광양시 진원면 전소리 망덕포구에서 항일시인 운동주(1917~1945) 시비 제막식을 가졌다. 폭 6m, 높이 2.8m 규모의 시비에는 윤 시인의 대표작인 '별헤는 밤'이 새겨졌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4079@

고교 기숙사 아토포·천식 걱정 '끝'

곡성고·구례고 등 16개 학교 친환경 준공

아토포,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짓고 있는 친환경 기숙사가 오는 3~4월 전남지역 16개 고교에서 일제히 준공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기숙생 공립고로 도내 16개교가 지정됨에 따라 곡비를 포함, 총사업비 680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부터 기숙사 건립공사가 시작돼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

이다. 친환경 기숙사가 들어서는 기숙생 공립고는 곡성고, 구례고, 담양고, 고흥고, 보성고, 화순고, 장흥고, 강진고, 해남고, 영암고, 함평고, 영광고, 무안 현경고, 장성 문향고, 완도고, 신안 도초고 등 16개교이다.

친환경 기숙사는 한옥 외관에 내부 마감재로 판백나무와 곶감토·점토벽돌, 황토바닥, 친환경 벽지 등 친환경 인증제품을 사용해 환경성 질환을 예방

하는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도록 설계됐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기숙사 신축 때 친환경 자재 구입비용으로 학교당 2억원에서 6억원까지 도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친환경 기숙사 준공을 계기로 열약했던 늦은 초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추가로 지정하는 기숙생 공·사립고 7개 학교에 대해서도 기숙사 건립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여수 금오도~안도간 연도교 개통

여주시 남면 금오도와 안도간 연도교인 안도대교가 지난 18일 공식 개통됐다. 금오도~안도간 연도교 공사는 지난 2005년 7월 착공돼 사업비 369억원이 투입됐다.

안도대교는 교량 길이 360m, 폭 12.5m이며 교각과 교각사이 경간길이 200m로 국내에서 가장 길다. 주탑 높이는 46.2m로 해수면에서 교량 상판까지는 27.1m의 통과 높이를 유지함으로써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고려했다.

교량의 주탑과 상판을 연결하는 케이블은 모두 36개로 케이블 하나에 들어가는 강선의 크기는 직경 12.5mm 37개 가닥의 고품질 폴리탈렌으로 구성됐다.

콘크리트 상판은 주탑 위에서 좌우 대칭으로 이동식 동바리 시스템인 폼 트래블러를 사용해 점차 전진하면서



교량 상부공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FCM공법이 적용됐다.

여주시 관계자는 "금오도~안도간 연도교 안도대교가 놓임에 따라 도서 지역간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의 생활편의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인 금오열도의 상품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물론 관광자원의 개발로 주민소득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ykpark@



인니 빵아래안 첫 구호활동 성공적

'2020 해외봉사단' 1단계 사업 마쳐

'하나 되는 지구촌, 희망! 아시아 2020 해외봉사단(이하 2020 해외봉사단)'이 10년에 걸친 장기 해외봉사 프로젝트의 1단계 사업을 성공리에 마쳤다.

전남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윤동성) 주관, 광주일보사 후원으로 이뤄졌던 2020 해외봉사단은 지난 19일 순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단식을 가졌다.(사진)

2020 해외봉사단 50여 명은 지난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11박 12일간 인도네시아 빵아래안 지역에서 활발한 구호활동을 펼쳐 지역민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봉사단은 당초 계획했던 ▲지역사회복지센터 건립, 운영지원 ▲학용품 및 긴급 구호지원 등 구호활동 ▲태권도, 국악 등 문화교

류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부랑인을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 ▲반동 사회복지재학과 MOU 체결 등 5가지의 지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윤동성 회장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누구나 다 함께 도울 수 있는 마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나눠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오는 2020년까지 10년간 인도네시아 빵아래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을 제공, 사회복지현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 해외봉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정기자 ejkim@

아동안전협의회 간담회

고흥경찰, 범죄예방 최선

고흥경찰서(서장 안동준)는 지난 18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각 과장, 지구대장, 박한별 과역초등학교 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안전 보호협의회를 개회했다.

고흥 경찰은 이날 아동안전보호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동안전 지킴이' 집관리 등 지역사회 아동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아동안전보호협의회는 경찰서장 아래 각종 봉사단체와 협력단체회장·부회장들로 조직돼 지역사회 아동안전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인어 전설이 살아 숨쉬는 곳

여수 거문도에 인어테마공원

올 1억 투입 산책로 조성도

인어의 전설이 살아 숨쉬는 여수 거문도에 인어를 테마로 한 공원이 조성된다.

여수시는 올해에는 10억원을 추가로 투입, 인어상을 세워 거문도를 인어 주제 해양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1월부터 10억원을 들여 거문도내 조망이 좋은 지점간을 연결하는 1km 길이의 탐방·

산책로 조성공사를 최근 완료했다.

여수시가 인어상 건립에 나선 것은 거문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좀체 소재를 찾기 어려운 '신지개'라는 인어 전설이 전해 내려오기 때문이다.

전설 내용은 거문도에 '신지개'라고 불리는 하얀 살결에 검은 생머리를 한 인어가 살고 있는데 섬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인 풍랑 발생도 이 '신지개'가 미리 알려준다

는 것. 거문도 사람들은 '신지개'가 짙벽에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내면 어김없이 큰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섬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섬의 수호신'으로 생각해 왔다.

여주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인어 전설이 있는 곳은 흔치 않다"며 "풍광 좋은 거문도에 인어상까지 건립하면 이색적인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ykpark@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효상공인중개사' (Hyo Sang Gong-in Jeung-gae-sa) with contact info T.062-376-4056 and H.010-3128-1515.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바다공인중개사' (Bada Gong-in Jeung-gae-sa) with contact info (063)581-5909 and H.010-8004-5900.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최고급 전원주택매매' (Choi-go-gup Jeon-won-ju-taek-mae-mae) with contact info (063)223-1772.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상일부동산' (Dae-in-dong-sang-il-bu-dong-san) with contact info (063)223-1772.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제' (Jusungmin Beopmul-gyeongje) with contact info 062)364-8700 and H.P. 010-4608-3700.